

#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상처받은 영광'

전남도교육청이 내부 갈등 속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도의회의 제동으로 빛이 바랬다.

핵심공약인 조직개편이 불투명해지면서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고, 노조도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 노사 합의가 '상처받은 영광'이라는 지적이다.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긴급의안으로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의회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달 29일 일반직 노조의 반발이 컸던 보건 및 학생안전 업무를 행정직이 아닌 교육직에 존치시키기로 한 발 물러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 광주택배노조 "정부가 부당노동행위 해결해야"

전국택배노조 광주지부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불응과 집하금지 조치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 광주지부(택배노조)는 3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감독해야 할 노동청이 손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표방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했다면서 "그동안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던 택배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내준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설립 필증을 받은 노조가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저항이 크다"면서 "사측의 노조에 대한 잇단 불법행위로 힘 없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택배노동자들은 지난 달 29일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했지만 사측은 집하금지 조치를 유지하며 사실상 직장폐쇄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측과 위탁 대리점들은 노조 불인정·개별복귀 요구로 노조와의 협상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도의회 공청회 거치지 않아 절차 문제

### 교육감 리더십 타격·노조 조합원 반발

하지만 의회는 내부 갈등이 큰 조직개편에 대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다 정상적인 의안 제출기간도 넘겨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의회 회의규칙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안을 상정하고 회기 개시 일 이후에는 긴급의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는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전남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신

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직개편 조례안을 성급하게 제정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시범 추진하면서 실효성을 진단한 뒤 내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개편안 의회 통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장 교육감의 핵심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 장 교육감의 아마추어적인 정치력과 소통 부재라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이다.

조직개편에 반발했던 일반직 노조도 결속력에 내상을 입었다. 보건·학생안전 업무를 교육직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으나 '공무원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민낯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교육감과 벌인 물밑 협상을 조합원들에게 상세하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이 나타난 점도 향후 결속력을 다지는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의회와 반대로 의안 상정이 무산됐으나 노사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회를 설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며 "올해 회기에는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못박았다.

김정환 기자



다리를 쭉 펴고 3일 서울 광진구 구의2동 대일어린이집에서 열린 '미취학 아동 신체활동 놀리기'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운동 V자 만들기를 하고 있다.

## 여수 무인텔 화재 현장감식 "끊어진 전기선 발견"

### 최초발화 유력한 객실 전등서 단락흔 발견

여수 무인텔 화재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여수경찰서는 3일 오전 11시께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여수소방서 화재조사반,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여수시 돌산읍 무인텔 화재 현장의 합동 현장감식 작업을 벌인 결과 '끊어진 전기선(단락흔)'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 합동감식단은 불이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2층 객실 내 현관문 센서등 주변에서 단락흔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 단락흔이 발견된 객실 안 전등과 에어컨 기관, 객실 설비 조작장치, 전열물 등을 수거했으며, 수거한 증거품에

대한 정밀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층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A(30)씨와 B(31·여)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 두 사람 모두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유력하다는 소견을 내놨다.

또 추가 정밀부검을 통해 두 사람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당시 연기가 많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과 A·B씨가 객실 내 욕실에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대피 과정에서 출입문을 찾지 못해 숨진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에 대해 집중적

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정밀감식 등을 통해 센서등에서 발견된 끊어진 전기선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었는지도 조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후 10시58분께 여수시 돌산읍 4층 규모 무인텔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2층 같은 객실에 머물던 A씨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투숙객 5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객실 25㎡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당시 총 30개 객실 가운데 24개 객실에 56명이 투숙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숙객들은 화재 경보가 울리자 스스로 대피하거나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여수=송기홍 기자

## 美알래스카 여진 최소 1000회...큰 피해 無

지난달 30일 규모 7.0 강한 지진이 일어난 미 알래스카 주 남부 앵커리지에 최소 1000회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상생활 복귀엔 큰 지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USGS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진은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약한 규모 2.5 미만 선에서 발생했다. 앵커리지 시 당국은 이번 지진이 진원이 40.9km로 깊었고, 건물에 대한 시의 엄격한 내진 규정 덕분에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CNN은 앵커리지 이선 버코워츠 시장이 "오늘은 눈이 많이 오는 (알래스카의) 여는 겨울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기상 당국은 2일 10-20 cm의 눈을 예보했다.

앵커리지 시 당국은 지금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었고, 공항과 병원을 비롯한 대다수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앵커리지 시의 인구는 약 30만 명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5시 30분 경 발생했고, 국립쓰나미경보센터는 남부 알래스카 연안 지역에 한때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알래스카는 지각과 화산 활동이 왕성해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환태평양 양 조산대에 위치, 연간 4만여 차례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한다.

뉴욕타임스는 2일 대부분의 앵커리지 시민들이 이번 지진에 대해 "알래스카는 원래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지난 1964년 3월27일 미국 역사상 최대인 규모 9.2 대지진이 앵커리지 동쪽 120 k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4분간 흔들림이 계속되고 쓰나미까지 밀어닥치면서 약 130명이 목숨을 잃었다.

## 중국인들,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재개에 반발

중국 정부가 최근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사고 이후 금지했던 원전 주변 지역 생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자 중국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특히 주식인 쌀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데 대한 반감이 크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달 28일 후쿠시마에 인접한 니가타(新潟)현에서 생산된 쌀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세관은 니가타에서 생산된 쌀은 지정된 공장에서 도정을 거쳤으며 수입 시 당국의 농수산물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지만 중국 인터넷 누리꾼들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누리꾼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당국은 외교를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관동성 선전에 위치한 허마셴성 슈퍼마켓의 한 쇼핑객은 니가타산 쌀이 수입된다면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판 페이스북인 위챗 공식 계정에 "일본 정부와 언론이 후쿠시마 방사능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며,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전 세계에 솔직하지 않아 공포심이 타국으로까지 확산했다"며 비난했다.

앞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중국을 포함한 54개국은 일본산 농수산물 일부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현재는 27개국만 수입을 재개했다.

중국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니가타, 미야기(宮城), 이바라키(茨城) 등 원전 주변 10개 현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다. 그러다 최근 중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수입을 재개기로 했다.

## 美주도 연합군 드론폭격에 IS 고위멤버 사망

과거 미군 특수부대 출신 인사 참수 사건에 연루된 이슬람국가(IS) 고위 멤버가 미국 주도 연합군의 시리아 드론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미 의회 전문채널 더 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망자는 아부 알 우머레인으로, 지난 2014년 미군 특수부대 출신 피터 캐시그 참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시그는 시리아에서 난민 지원단체를 조직해 의료 구호활동을 하다 IS에 납치돼 참수된 인물로, IS에 참수된 세번째 미국인이다.

선 라인언 대령은 성명을 통해 "우머레인은 전직 미군 특수부대 피터 캐시그 살해에 연루돼 있고 연합군을 상대로 임박한 위협을 안시켰다"며 "그는 선인 IS 멤버로서 몇몇 다른 수감자들을 참수하는 데 직접 관여했거나 연루돼 있다"고 했다.

뉴시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단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됩니다.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